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 현장 중심 민원 대응과 용수공급으로 호평

[이강산]

[한국농어민신문 이강산 기자]



전지영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장 현장점검

“전에는 우리가 요구사항을 전달해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는데, 요즘은 지사장과 부장급 간부들이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다녀서 농민들 사이에서 농어촌공사가 달라졌다는 말을 많이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가 달라졌다는 평가가 지역 농업인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올해 1월 부임한 전지영 지사장을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민원 대응과 농업용수 확보에 공사가 적극 나서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영암지사는 관리면적이 1만2126ha로 전남에서 가장 크고, 전국에서도 6번째 규모에 해당한다.

농업용수 이용자는 1만1500명에 달하며, 관리 대상 시설은 저수지 138개소, 양수장 69개소, 배수장 14개소 등 총 272개소, 용·배수로도 2191km에 달한다.

이를 직원 28명과 수리시설감시원 162명이 담당하고 있으며, 직원 1인당 관리면적 428ha, 감시원 1인당 74ha를 책임지는 열악한 상황이다.

전지영 지사장은 "영암지사는 1980년대 영산강 2·3단계 사업 당시 설치된 시설들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 지역으로, 직원들과 함께 농업인들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면서, "100% 만족시켜 드리기는 어렵지만, 민원 해결을 최우선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쌀 공급과잉으로 인한 논 타작물 재배 등 정부의 재배 정책 변화에 따라, 가루쌀, 논콩 등 다양한 작물 재배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모내기 시기 한 달 정도 농업용수 집중 공급으로 대응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다양한 작물에 따라 용수 공급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전 지사장은 "올해는 5월 20일부터 직원들이 주말 없이 근무 중이고, 밤에는 부족한 저수지에 양수 작업을 진행하며 원활한 급수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라면서, "변화하는 현장에 대응하기 위해 직원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현장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예산 부족과 노후화된 시설은 공사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영암지사의 경우 매년 64억원 규모의 유지관리 예산을 받고 있지만, 지난해 전기료가 14억원을 넘었고, 올해는 그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 1월 취임한 전지영 영암지사장은 현장 민원 대응으로 호평받고 있다.

전 지사장은 "농업인의 맞춤형 수요에 대응하려면 용수관리 예산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라며, "이를 감당하기 위해 매년 본사 및 지역본부와 협의해 예산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영암지사는 수리시설 개보수, 재해 대비 배수개선 등 생산기반 정비사업 신규 지구를 적극 발굴해 국비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86억 원 규모의 사업을 유치해 노후 시설 개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영암지사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일환으로 미암학평, 금정취정 등 올해 2

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정주 여건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다.

전지영 지사장은 "앞으로도 직원들과 함께 민원 하나하나에 책임감을 갖고 대응하고, 현장 소통을 통해 부족한 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영암=이강산 기자 leeks@agrinet.co.kr